

2026년 7급 공채 · 민간경력 선발 대비

한림법학원 PSAT 마스터 클래스

언어논리 제5회

시행일 : 2026년 6월 17일

출제자 : 이나우 선생

정답 및 해설

PSAT 언어논리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①	③	②	⑤	④	⑤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③	⑤	②	②	③	⑤	③	①
21	22	23	24	25					
③	①	⑤	⑤	⑤					

PSAT 언어논리 해설

1. 정답 ④

[정답해설]

④ : [5]문단 노론은 경종의 질병에 대해서 공포함으로써 소론을 견제하고 자신의 정권의 안정성을 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영조는 못마땅하게 여겼고 정미환국을 통해 오히려 노론을 배제하게 되었다.

[오답해설]

- ① : 정미환국에서는 노론을 배제하고 소론을 중시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 [5]문단 영조에 대해서 남인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주체는 노론이 아니라 소론 강경파였다.
- ③ : [4]문단 노론이 경종의 질병에 대해서 널리 알리려고 한 것은 영조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 ⑤ : 노론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없다.

2. 정답 ④

[정답해설]

④ : [3]문단 적실과 양첩이 모두 자식이 없을 경우라도 비첩의 소생은 상속되는 재산의 1/7만을 받을 수 있었다. 적실의 자식이 있을 경우에 비첩의 소생은 1/10만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오답해설]

- ①, ② : [4]문단 “이 상속법에 따르면 친척 자식인 노비가 노비를 소유할 수 있었다.” 즉 비첩의 소생은 여전히 노비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첩의 소생의 신분은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 ③ : [4]문단 “게다가 양첩의 아들이 부친의 종통을 이어 제사를 받들면 전체 재산의 반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비첩의 소생이 아니라 양첩의 아들인 경우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 [1]문단 “그 대신 양인처럼 균역을 부여하여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하였다.” 즉 노비들이 지는 사역은 면해주었지만 대신 양인들이 하는 균역을 부여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첩의 소생을 양인으로 간주한 것은 아니다.

3. 정답 ①

[정답해설]

ㄱ : [1]문단 “두 운하를 건설하게 된 계기는 모두 세곡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였다.”

[오답해설]

ㄴ : “그러나 가적운하와 굴포운하는 전자의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두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을 좌초시킨 것은 바로 지질학적 조건 때문이었다.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가적운하의 경우 “지하에 단단한 지층이 있어서 중도포기”라는 기록이 보이며, 굴포운하의 경우에는 “인천 원통현의 암석 구간을 뚫지 못해 수포로 돌아갔다.”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다.” 즉 땅을 파내는 작업에 실패해서

중단되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

- ㄷ : 골포운하는 백악기에 형성된 화산암 지대였으므로 가적 운하와는 암반층의 구성이 달랐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

4. 정답 ③

[정답해설]

- ㄴ : 1차 석유 파동은 중동산 원유의 유가를 조절하고, 세계로 판매되는 중동산 원유의 수출을 금지한 결정으로 인해서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결과 전 세계는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었다고 하였으므로, 전 세계 경제가 상당부분 중동 원유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ㄷ : 제2차 석유 파동은 OPEC가 실질적으로 원유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 하지만 이란의 석유 생산량 감소도 결국 가격을 인상하는데 기여했고 또한 제2차 석유 파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오답해설]

- ㄱ : [1]문단 중동 국가들의 단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 국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같은 중남미 국가, 나이지리아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도 소속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중동 국가들의 단체라고 할 수 없다.
- ㄹ : OPEC의 유가 인상은 이란에서 유혈 폭동이 발생하고, 이란의 원유 생산이 감축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5. 정답 ②

[정답해설]

- ② : [3]문단 과학자들이 과학의 대중화라는 면에 대해서는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해당 과학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는 추론할 수 없다.

[오답해설]

- ① : [1,2]문단 필자는 교육계가 과학지식의 대중화에 실패했다는 평가 하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과학의 대중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 ③ : [4]문단 언론매체들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과학적 논쟁의 보도에는 열을 올리지만, 과학적 사실의 전달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평가다. 따라서 옳은 설명.
- ④ : [4]문단 “또한 대학에서 교수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과학의 대중화는 거의 무시된다. 이와 같은 과학자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감안하건데 과학자들은 언론과 가깝게 지내야 할 동기가 없다.”
- ⑤ : [1]문단 필자는 대중들이 과학에 대해서 유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반드시 과학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6. 정답 ⑤

[정답해설]

- ⑤ : DDT는 처음부터 살충제로 개발된 것이 아니다.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독극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곤충을 대상으로 실험을 통해 살충제로 확인된 것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해설]

- ① : [5]문단 DDT 사용 이전보다 해충의 수가 증가했으므로 본 선택지의 설명은 옳다.
- ② : [2]문단 DDT 사용으로 인해 베네수엘라에서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800만 명에서 800명으로 급감하였다. 따라서 옳은 설명.
- ③ : [3]문단의 내용 참조.
- ④ : [4]문단 “살충제로 살포되는 낮은 농도의 DDT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하지만 DDT를 살포한 지역에서 재배한 작물이나 그 작물들을 먹고 자란 가축들을 인간이 섭취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체내에 축적되면 고농도의 DDT가 되고 결국 사람에게도 질병을 유발하였다.

7. 정답 ④

[정답해설]

- ④ :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면 인지하는 잡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잡음 속에서 인지하는 패턴이 증가한다. 또한 도파민이 과잉 분비가 되면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

[오답해설]

- ① : ❶문단의 내용 참조.
- ② : ❸문단의 내용을 통해 도파민의 과다분비가 정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도파민의 분비량이 부족해지면 주의력결핍장애에도 걸릴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 ❷문단 “도파민의 분비량이 과다하게 되면 뇌가 인식하는 자극 중 일부를 과도하게 인지하게 만들어 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 ⑤ : ❷문단 “사실 특정 자극이나 반응이 일어날 때 도파민 분비가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중요한 정보를 주의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특정 자극에 집중하거나 특정 행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❹문단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주의력이나 동기, 흥미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현저성이 요구되는 데 이에 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흔히 주의가 산만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8. 정답 ⑤

[정답해설]

- ⑤ : ❷문단 “하지만 반복적 활동은 매번 나타나는 미세한 차이와 변화들을 수용하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완성된 기억을 만들어 낸다.” 습관 기억은 처음의 상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반복의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차이도 수용한 결과이다.

[오답해설]

- ① : ❸문단 “따라서 이미지 기억은 낱짜를 지니고, 그것이 생겨난 모습 그대로 있으며, 습관 기억처럼 반복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 ② : ❹문단 “따라서 습관 기억과 이미지 기억은 서로 관계없이 작동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두 기억이 완벽하게 독립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이루어지는 활동은 항상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기억은 서로 의존적이다.”
- ③ : 이미지로 저장된 기억이 아니라 학습과 반복을 통해 각인이 되는 기억이므로 습관 기억에 해당한다.
- ④ : “그런데 이 기억은 전혀 습관 기억의 특성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것은 질서정연하게 조직화되지도 않고, 반사적 반응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처음 나타난 그대로 정신에 보존된다.” 이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9. 정답 ②

[정답해설]

- ② : 열성적인 팬은 구단과 자신을 같은 존재로 간주한다. 따라서 구단의 부진에 대해서 원인을 찾음에 있어 외적 환경에 귀인하려는 편향을 보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④,⑤는 모두 구단 내부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귀인 형태이다. ②은 구단의 부진을 외부 유명인인 펠레씨의 저주로 귀인하고 있다. 앞서 와이너가 언급했던 편향에 해당하는 것은 ②이다.

10. 정답 ④

[정답해설]

- ④ : 실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의 조건	실험의 결과 : 기억 여부
30초간 감상만	상대적으로 잘 기억함
30초간 감상하면서 동시에 촬영	상대적으로 잘 기억하지 못함
30초간 감상 + 10초간 촬영	상대적으로 잘 기억하지 못함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진촬영을 했다는 자체가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서 기억하는 데 방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가 된다.

[오답해설]

- ① : 두 번째 실험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실험군의 실험결과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설이다.
- ② : 세 번째 실험에 따르면 30초간 온전히 감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가설은 옳지 않다.
- ③ : 두 번째 실험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실험군의 실험결과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설이다.
- ⑤ : 세 번째 실험에 따르면 30초간 온전히 감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가설은 옳지 않다.

11. 정답 ④

[정답해설]

④ : [3문단] 콜라겐이 튼튼해지는 것에 있어 수소 결합(하이드록시기와 수소의 결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오답해설]

① : [1문단] 철근-콘크리트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은 콜라겐이 아니라 뼈이다. 뼈는 콜라겐과 인산칼슘이라는 물질로 인해서 철근-콘크리트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또한 상당한 강도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② : [2문단] 이는 콜라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콜라겐을 제외한 일반적인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다. 콜라겐은 접힌 공모양이 아니라 세 가닥의 사실을 꼬여 있는 기다란 형태를 가지고 있다.

③ : [4문단] 피부의 노화 과정과 관련하여 언급된 것은 수소결합이 아니라 콜라겐 간의 다리 결합이다.

⑤ : [3문단] 비타민 C가 부족해지면, 하이드록시기와 수소 간의 결합이 원활하지 않아 콜라겐이 단단하게 연결되지 못한다. 즉 다리 결합이 아니라 수소 결합에 관한 설명이다.

12. 정답 ①

[정답해설]

① : [2문단]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한국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비합리성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거나 정부의 운영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합리적 투표행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선거결과를 왜곡하지는 않는다.

[오답해설]

① : [3문단] “투표와 같은 대중의 정치 참여가 물질적인 동기보다 심리문화적 동기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구체적인 이유는, 먼저 개인의 투표 행위가 선거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 [1문단] “사실 귀속감이나 의무감과 같은 비합리적인 동기가 없고, 순수하게 물질적인 동기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투표 행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④ : [4문단] “국민의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이념이나 노선, 공약 등은 대부분의 국

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렴된다.”

⑤ : [4문단]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권력의 범위와 강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크지 않다.”

13. 정답 ③

[정답해설]

주어진 조건을 정리하면,

1) $\sim(A \wedge B) \rightarrow (\sim C \wedge \sim D)$

2) $\sim(B \wedge D) \wedge (B \vee D)$

3) $B \rightarrow (A \vee C)$

4) $(\sim B \vee \sim D) \rightarrow E$

1번 명제를 통해서 $\sim B \rightarrow \sim D$ 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런데 2번 명제에서 $B \rightarrow \sim D$ 와 $\sim B \rightarrow \sim D$ 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B와 $\sim D$ 를 도출할 수 있다. B가 선정되므로 3번 명제를 통해서 $A \vee C$ 가 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번 명제에서 $\sim A \rightarrow \sim C$ 라고 하였으므로 이 두 명제를 통해서 A안 역시 선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sim D$ 가 참이라고 하였으므로 4번 명제를 통해서 E가 참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도출한 결론을 정리해보면, A, B, $\sim D$, E는 확정할 수 있으며 C안은 선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선정될 수 방안의 최소수는 A, B, E로 3개임을 알 수 있다.

14. 정답 ⑤

[정답해설]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면,

1) $\text{갑} \vee \text{을}$

2) $(\sim \text{갑} \rightarrow \text{병}) \wedge (\text{기} \rightarrow \text{갑})$

3) $(\sim \text{을} \rightarrow \text{기}) \wedge (\sim \text{병} \rightarrow \text{을})$

4) $(\sim \text{무} \rightarrow \text{정}) \wedge (\text{정} \rightarrow \text{무})$

5) $(\text{갑} \wedge \text{을}) \rightarrow \sim \text{무}$

6) $\sim(\text{정} \wedge \text{기}) = \text{정} \rightarrow \sim \text{기} = \text{기} \rightarrow \sim \text{정}$

4번 명제를 먼저 살펴보면, $\sim \text{무} \rightarrow \text{정}$ 이고 $\text{정} \rightarrow \text{무}$ 이 모두 참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서 무가 참임을 알 수 있

다.

무가 참이므로 5번 명제를 통해서 $\sim(\text{갑} \wedge \text{을})$ 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결과와 1번 명제를 통해서 $\text{갑} \vee \text{을}$ 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우의 수를 나누면

i) $\text{갑} \wedge \sim\text{을}$ 의 경우 :

$\sim\text{을}$ 이 참이므로 3번 명제를 통해 기와 병이 참임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결과와 6번 명제를 통해서 $\sim\text{정}$ 을 도출할 수 있다.

$\text{갑}, \sim\text{을}, \text{병}, \sim\text{정}, \text{무}, \text{기} = 4\text{명}$

ii) $\sim\text{갑} \wedge \text{을}$ 의 경우 :

$\sim\text{갑}$ 이 참이므로 2번 명제를 통해 병과 $\sim\text{기}$ 가 참임을 도출할 수 있다. 역시 정의 진리값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sim\text{갑}, \text{을}, \text{병}, \text{정}(?), \text{무}, \sim\text{기} = 3 \text{ or } 4\text{명}$

따라서 최소 인원은 3명, 최대 인원은 4명이 된다.

15. 정답 ②

[정답해설]

ㄴ : 정은 병이 이야기했던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수동적 반응만 보인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반응의 과정 속에서 정신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의 혼련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오답해설]

ㄱ : 갑은 게임에 대해서 일반화해서 유해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을은 게임 중에는 유해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사례를 들어 갑을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옳은 평가.

ㄷ : 병은 게임이 유해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무에도 역시 제시되어 있으므로 본 설명은 옳다.

16. 정답 ②

[정답해설]

ㄱ : 본문에 따르면, 환기 \rightarrow A이다. 따라서 A가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환기시스템이 사고의 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ㄴ : 본문에 따르면 밸브 문제 \rightarrow (경고 문제 \rightarrow B)이다. 따라서 \sim B라고 해서 반드시 \sim 밸브 문제라는 결론은 도출할 수 없다.

[오답해설]

ㄷ : 본문에 따라서 제어 문제 \leftrightarrow (A \wedge B)이 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sim 제어 문제 \rightarrow (\sim A \vee \sim B)가 참이라는 것도 도출할 수 있으므로 본 문항의 설명은 반드시 참이 된다.

17. 정답 ③

[정답해설]

ㄱ : 오늘날의 어느 나라의 영토에 편입이 되었는가에 따라 역사의 귀속 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는 중국 역사학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게 된다. 고구려나 발해가 현재 중국의 영토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례는 중국의 주장을 강화한다.

ㄴ : 중국 역사학자들은 고조선부터 부여, 고구려를 거쳐 발해로 이어지는 역사를 모두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의 역사는 통일신라를 비롯한 한반도 내의 역사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만약 통일신라가 발해와는 완전히 다른 지배층을 가진 국가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이는 중국 역사학자들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으므로 약화되지 않는다.

[오답해설]

ㄷ :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고려가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설령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점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조선, 부여, 고구려가 중국의 영토 내에 있으므로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주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본 문항은 중국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약화하지는 못한다.

18. 정답 ⑤

[정답해설]

갑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 1) 우승 → 선발
- 2) ~참여 → ~우승
- 3) 우승 → 통과
- 4) (충분 ∧ 참여) → 통과
- 5) 충분

- ㄱ : ㄱ은 1번 명제의 역으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다.
 ㄴ : 1번과 2번 명제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선발 ∨ ~참여) → ~우승이 된다. 이 자료만 가지고 선발과 참여의 관계를 도출할 수는 없다.
 ㄷ : 4,5번 명제를 통해서 참여 → 통과는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의 이 명제인 ~참여 → ~통과는 도출할 수 없다.

19. 정답 ③

[정답해설]

- ㄷ : 필자는 개인의 종교관이나 정치관에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알코올이나 음식에 대한 선호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데 만약 개인의 종교관/정치관의 문제와 알코올/음식 선호에 대한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필자의 주장이 약화될 수 있다.

[오답해설]

- ㄱ : [1]문단 “특정 생물학적 상태와 행동 사이에 단순한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동이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주장을 약화하려면 ‘상관관계 → 질병’이 성립함을 보여주면 된다. 그런데 <보기>의 ㄱ문항은 ~상관관계 ∧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본문의 주장을 약화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ㄴ : [2]문단 “어떤 행동이 불편한 정신 상태를 유발한다고 해서 곧 그러한 행동이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약화하기 위해서는 ‘불편 유발 → 행동 교정’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 선택지에서는 ~불편 유발 → ~행동 교정을 지지하는 것이므로 본문의 주장을 약화한다고 볼 수 없다.

20. 정답 ①

[정답해설]

- ㄱ : 필자는 오직 채식만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채식 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단순히 개인적인 동기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식을 하지만 채식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점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본 ㄱ의 내용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필자의 주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답해설]

- ㄴ : 필자는 개인적인 동기가 아닌 (타인이나 사회라는 범주에서의) 윤리나 종교적 이유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윤리적 이유로 금연을 했음에도 금연주의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채식주의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필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므로 필자의 주장을 약화한다.
 ㄷ : 채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식물만 먹는 것은 아니다. 식물은 아니지만 버섯을 먹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식물이 아닌 것을 먹는 사람들 중에도 채식주의자가 있다는 사실은 필자의 주장을 약화하지 못한다.

21. 정답 ③

[정답해설]

- ③ : 복수의 경쟁 가설이 존재할 수 있고, 어떤 가설이 현상을 더 잘 설명해내느냐에 따라 개연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복수의 가설이 존재할 수 없다는 본 설명은 거짓이다.

[오답해설]

- ① : 유비 논증과 가설 추리는 그럴 듯해보여도 언제든지 논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연성은 낮을 수 있는 논증이다.
 ② : [3]문단 “전제된 개체(위의 유비 논증 표준 형식의 경우 Y)의 수와, 유비되는 두 대상 사이에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특성(F, G)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가 고려된다. 물론 개체의 수나 개체 간의 유사한 특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논증은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④ : [3]문단 “즉 전제에서 유사하다고 언급된 특성과 결론 내용과의 관련성이 클수록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높아진다.”

⑤ : [6]문단 “이러한 가설 추리를 평가할 때는 그 가설이 다른 가설들과 정합성을 가지는지, 또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22. 정답 ①

[정답해설]

본문에서 유비 논증의 반박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유비되는 두 대상의 유사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다. 즉 두 대상의 비유사성을 보여주면 유비 논증은 논박될 수 있다. 보기의 논증을 살펴보면 갑과 을의 유사성은 A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을이 A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게 되면 유사성의 고리가 끊어져 결론의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

23. 정답 ⑤

[정답해설]

⑤ : 첫 만남 이용권은 첫 아이에만 한정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②문단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당 2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부가 조건 역시 만족하는 아이라면, 둘째 아이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답해설]

- ① : 본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체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출생아의 보호자다. 즉 부모로 한정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없다.(시설보호아동이나 부모가 수형자인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진술을 고려해 보자.)
- ② : 본문에 따르면 첫 만남 이용권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이 출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A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자의 거주지에 관한 규정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없다.
- ③ : 첫 만남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
- ④ :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발급의 주체는 금융기관이다.

24. 정답 ⑤

[정답해설]

⑤ : 해당 범조항을 살펴보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속임수를 썼을 경우에는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을 살펴보면, 공단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사건의 원인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업무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제57조에 해당하는 건이라 판단할 수 없고, 이에 대해 부당이득이라 판단해서 환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5. 정답 ⑤

[정답해설]

- ㄴ : ‘공기업 경영 평가’는 이미 1983년부터 도입하여 실시되어 왔다. 다만 최근 공공성 부문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이러한 평가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
- ㄷ : [3]문단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 당기 순이익, 부채 비율이 있으며 이 지표들로 달성도를 측정하기는 무척 용이하다. 하지만 이렇게 수익성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살펴봐야 할 공공성은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여겨져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즉 공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오답해설]

ㄱ : [4]문단 공기업의 공공성 추구가 반드시 수익성 감소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